

한려수도의
그림같은
통영



푸른 바다, 심포 하나

여름의 낭만 넘실대는 바다
그림같은 다도해 품은 미항
걸음걸음마다 감탄이 절로



미륵사 케이블카



소매물도 등대

한려수도 비경 눈에 담고, 소매물도 등대섬 가슴에 품고,

한려수도는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여수 옹동에서 남해·사천·총무를 거쳐 통영 한산도까지로 총 길이가 300리(약 120km)에 이르는 뱃길을 이룬다. 우리나라 8경 중 하나로 곳곳에 '이순신'의 유적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한려수도를 최고의 전망에서 감상하고 싶다면 통영의 '미륵사 케이블카'에 몸을 실어보자. 국내 최장거리인 1975m의 이 케이블카는 2008년 4월18일 개통한 이후 4년2개월 만인 지난달 6일 누적 탑승객 500만명을 돌파했다.

도남동 하부역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10여분 정도 걸쳐 미륵산 정상 상부역사까지 오른 후 산책데크를 따라 미륵산 정상 전망대에 이르면 한 쪽의 산수화 같은 한려수도의 비경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겨울같이 잔잔한 물결, 바다에 흠뻑 젖어 침들, 뛰어난 해양경관 뿐만 아니라 통영시가지와 통영항까지 한눈에 관광할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본의 대마도, 지리산 천왕봉, 여수 돌산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100대 명산에 꼽히는 미륵산은 그 높이는 461m로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이러한 탁월한 전망을 자랑하며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최고의 전망에서 한려수도의 뛰어난 장관을 눈에 담았다면, 다음 코스는 바다 위 자연으로의 여행 '소매물도'로 가보자.

통영항에서 남동쪽으로 26km 해상에 위치한 소매물도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초지가 발달한 작은 바위섬이다. 통영여객터미널에서 하루 2~3회 운항되는 배를 타고 1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소매물도의 모습은 마치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산과 같으며 해안 절벽 위에 서있는 하얀 등대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몇 해 전부터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후 사진작가, 배낭족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작은 섬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차림새가 필요하다.

선착장을 벗어나자마자 가파른 오르막길로 시작해 정상까지 이어지는 등산로와 계단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등산 코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마루에 올라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접점이 떠 있는 섬들, 깎아지른 듯한 해안절벽에 철쭉철쭉 부딪치는 파도를 보노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쿠쿠다스 섬'이라고도 불리우는 등대섬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는 것은 소매물도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물때를 맞춰 가면 반질반질한 공돌이 있는 50m의 바닷길을 직접 걸어서 등대섬을 오갈 수 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한려수도의 눈부시던 쪽빛 바다와 아득한 수평선이 눈에 아른거린다. 이 여름이 다 가기 전 아름다운 비경을 직접 눈에 담고, 가슴에 품어보자.

경남 통영시 발개로 205 (도남동 349-1, http://www.ttdc.kr)

▲요금:대인=왕복 9000원, 편도 5500원. 소인(만4세~초등)=왕복 5000원, 편도 3000원 /시민기자=박수정(주마로스튜디오)

■오미사 꿀빵

달달한 팥앙금 쫄득한 도넛... '그때 그시절' 맛

통영만의 특색 있는 맛! 수작업 고집하는 꿀빵! 6·25 전쟁 후 달짝지근한 간식이 귀하던 시절, 1960년대 통영에서 탄생된 도넛의 일종이다.

겉에 꿀이 입혀져 있어 쫄득쫄득하며 통깨가 많이 붙어 있어 고소하다. 속에는 팥소나 구루마 앙금이 들어 포슬포슬 달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오미사 꿀빵'이다. '1960년대 초 가관에서 출발했는데 맛있다는 소

문이 퍼진 뒤엔 가관 옆 세탁소 이름인 '오미사'를 빌려와 '오미사 꿀빵'이 되었다.

수작업을 고집하기 때문에 만들어 내는 양에 한계가 있다. 오전 11시 정도면 품절되기 일쑤다. 일찍 발품을 팔아서 기다리거나 분점에서 맛봐야 한다.

최근엔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서 '오미사 꿀빵'을 손쉽게 맛볼 수 있다.



경남 통영시 봉곡동 124-7번지(055-646-3220, http://www.omisa.co.kr)

/시민기자=박수정(주마로스튜디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